

## 핵심역량 지향성과 프로세스 관리역량이 IT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연구

김 용 진\*, 구 철 모\*\*, 남 기 찬\*\*\*, 송 재 기\*\*\*\*

###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Core-Competency Orientation and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Yong Jin Kim, Chulmo Koo, Ki-Chan Nam, Jaeki Song

Recently, the role of IT service providers has been enlarged from managing a single function or system to reconstructing entire information management processes in new ways to contribute to shareholder value across the enterprise. This movement toward extensive and complex outsourcing agreements has been driven by the assumption that outsourcing information technology functions is a reliable approach to maximizing resource productivity. Hiring external IT service providers to manage part or all of its information-related services helps a firm focus on its core business and provides better services to its clients, thus obtain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This practice of focusing on the strategic aspect of outsourcing is referred to as strategic sourcing where the focus is capability sourcing, not procurement. Given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outsourcing, however, to our knowledge,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tegic outsourcing orientation and outsourcing performance. Moreo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factor that makes the strategic outsourcing effective.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IT outsourcing orientation and IT outsourcing performance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strategic IT outsourcing orientation influences outsourcing performance. Based on the framework of strategic orientation-performance and core competence based management, this study first identifies core competency orientation as a proper strategic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BK21 연구교수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Texas Tech University 부교수

orientation pertinent to IT outsourcing and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as the mediator to affect IT outsourcing performanc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then tested with a sample of 200 fi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it draws on the strategic orientation - performance framework in developing its research model so that it can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the well studied phenomena. This perspective allow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look at outsourcing from an angle that emphasizes the strategic decision making to outsource its IT functions. Second, by separating the concept of strategic orientation and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this study provides practices with insight into how the strategic orientation can work effectively to achieve an expected result.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provides a basis for future studies that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IT outsourcing performance with more controllable factors such as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rather than external hard-to-control factors including trus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IT outsourcing success. Based o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e competency theories, we develop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y orientation and IT outsourcing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on IT outsourcing performance. The model consists of two independent variables (core-competency-orientation and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and two dependent variables (outsourced task complexity and IT outsourcing performance).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n outsourcing associatio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analysis method.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 of core competency orientation on both outsourced task complexity and IT outsourcing performance. Further analysis and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IT Outsourcing, Strategic Orientation, Core Competency Orientation, IT Outsourcing Process Management Capability, Outsourced Tasks Complexity

## I. 서 론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은 현재 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IT 아웃소싱'('아웃소싱'으로 칭함)을 통해 전체 운영비용 대비 업무효율과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리고 기업 자원 운영의 효율적 할당과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Smith *et al.*, 1998]. 현재까지 밝혀진 아웃소싱의 주요 성공요인은 고객사와 서비스 제공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ee and Kim, 1999]. 그러나 아웃소싱의 근본적인 성공요인을 설명하기엔 지금까지

연구된 거래비용 관점과 자원 교환이론 관점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최근 IT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조직의 기능 중심 서비스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확대되어 기업전체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Quinn, 1999]. 이에 따라, 새로운 IT 서비스의 개념은 단순한 기능중심의 지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고객사와 제공사간의 복잡한 서비스 계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Hemphill, 2004; Quinn, 1999, Quinn and Hilmer, 1994]. 이와 같은 방식

은 IT 서비스가 각 기업의 비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돋는다. 기업의 핵심과 비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자원배분과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위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Quinn, 1999; Teng *et al.*, 1995]. 이와 같은 흐름은 과거 단순한 조달업무에 국한되었던 아웃소싱에서[Gottfredson *et al.*, 2005], 핵심역량 중심의 아웃소싱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결과적으로, 핵심역량 관점의 전략적 아웃소싱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며, 전략적 아웃소싱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원인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심역량 중심의 전략적 IT 아웃소싱 지향성과 아웃소싱 될 업무 분야의 범위와 깊이[Gottfredson *et al.*, 2005]와 아웃소싱 성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핵심역량 지향성을 전략적 지향성으로 간주하여 연구의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아웃소싱의 성과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다음부터 '프로세스 관리역량'으로 칭함)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모델은 아웃소싱을 한 200家企业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 연구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연구모형을 전략적 지향성과 IT 아웃소싱 성과라는 틀에 기반하여 도출함으로써, 아웃소싱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였다. 핵심역량 지향성은 아웃소싱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프로세스 관리역량 개념이 아웃소싱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내부 통제적 변수인 프로세스 관리역량이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과 프로세스 관리역량, 그리고 핵심역량에 대한 문헌연구와 연구모델, 연

구방법론, 그리고 결론과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 II. 문헌연구

### 2.1 전략적 IT 아웃소싱

기존 연구들은 아웃소싱의 요인과 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거래비용이론, 조정, 그리고 생산이론[Ang and Cummings, 1997; Ang and Straub, 1998; Bakos and Brynjolfsson, 1997; Chaudhury *et al.*, 1995; Nam *et al.*, 1996; Smith *et al.*, 1998; Wang *et al.*, 1997], 역량과 자원기반 이론[Chalos and Sung, 1998; Cross, 1995; Feeny and Willcocks, 1998; Lacity and Hirschheim, 1993; Lacity *et al.*, 1995; 1996; 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Saunder *et al.*, 1997; Willcocks *et al.*, 2004], 혁신이론[Chesbrough and Teece, 1996; Hu *et al.*, 1997; Loh and Venkatraman, 1992], 고객사와 서비스사의 정치적 과정[Lacity and Hirschheim, 1993], 파트너십과 관계[Grover *et al.*, 1996; Ho *et al.*, 2003; Kern and Willcocks, 2002; Lee and Kim, 1999; McFarlan and Nolan, 1995], 그리고 신뢰[Sabherwal, 1999] 등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재무 및 기술자원 차원에서 연구된 주요 요인들은 운영비용 감소, 유동성, 현금흐름과 대체능력, 정보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실시간 접근성, 벤더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등을 포괄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Ang and Cummings, 1997; Smith *et al.*, 1998; Teng *et al.*, 1995]. 그리고 때때로 동일 산업의 경쟁사가 취하는 전략적 방식이나 외부조직의 압력에서 비롯되기도 한다[Ang, 1997]. 앞에서 언급한 재무적 관점과 경쟁사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아웃소싱을 결정한 기업들은 때때로 정보의 품질과 정보시스템 지원 등의 기대성과를 성취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이 현재 정보시스템의 운영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아웃소싱을 효과만을 얻고 있다[Teng *et al.*, 1995].

하지만, 최근 아웃소싱 연구는 단순히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Gottfredson *et al.*, 2005]. 오히려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업의 비핵심 분야를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아웃소싱 함으로써 핵심분야를 보다 전문적이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Teng *et al.*, 1995]. 따라서 전략적 아웃소싱에서는 기업이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아웃소싱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Teng *et al.*, 1995]. 이와 같은 주장은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아웃소싱을 통하여 기업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조직구조 재편하여 자원획득과 활용에 보다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Ang and Cummings, 1997].

요약하면, 기존 연구는 IT 아웃소싱의 유발요인으로서 자원 불일치를, 성공요인으로서 관계관리를 강조한 반면, 최근의 흐름은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 아웃소싱을 강조한다[e.g., Gottfredson *et al.*, 2005].

## 2.2 전략지향성과 핵심역량

경영학 연구들은 전략적 지향성이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Miles *et al.*[1978]는 기업을 전략 유형에 따라 방어자, 분석자, 탐색자, 그리고 수동적 반응자로 구분하였다. Porter[1980]는 원가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을 기업이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Venkatraman[1989]도 공격적 추구, 분석적 추구, 방어적 자세, 긍정적 자세, 미래지향적 자세, 그리고 위험 회피 자세로 기업전략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앞의 세 가지 전략지향성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 그리고 효율적인 기업운

영 측면에서 경쟁기업보다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웃소싱과 같은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운영의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방식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략적 아웃소싱[Gottfredson *et al.*, 2005]은 자원과 역량 그리고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업 프로세스가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 역량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아웃소싱 이슈는 핵심역량과 비핵심역량을 구분하여 비 핵심부분을 아웃소싱 하는 방식을 말한다[Quinn, 1999; Quinn and Hilmer, 1994]. Hamel and Prahalad[1994a]는 핵심역량을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통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이미 제조와 서비스 분야에 뛰어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amel and Rahalad, 1994b; Quinn and Hilmer, 1994].

핵심역량 기반의 전략적 소싱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째, 부족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을 최대화 시키는 능력, 둘째, 경쟁사와의 경쟁과 방어능력, 셋째, 외부 공급사를 통한 특별한 회귀 자원을 수급 또는 활용능력, 넷째, 관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방향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다[Quinn, 1999; Quinn and Hilmer, 1994].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아웃소싱 제공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사의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아웃소싱 업무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아웃소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웃소싱 프로젝트의 타이밍과 범위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핵심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을 ‘핵심역량 지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전략지향성으로서의 핵심역량 지향성은 아웃소싱 업무에 있어서 전략적 지향성과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 2.3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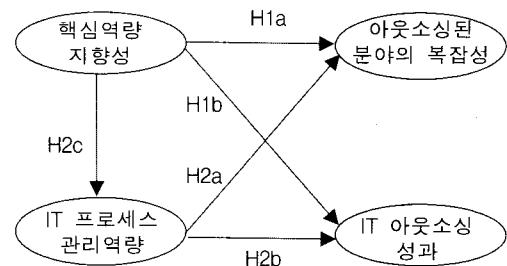
기업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정보의 생산과 관리과정(기술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면, IT 부서의 책임이 정보생산으로부터 정보분석과 통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아웃소싱의 도입은 기업에게 관리적 위험부담을 주게 된다[Smith *et al.*, 1998]. 이러한 위험은 IT 역량과 혁신 능력의 손실, 공급사와의 감춰진 비용과 기술적인 노하우, 서비스사에 종속, 서비스의 질과 수행속도의 저하, 그리고 정보인력의 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Earl, 1996; Quinn, 1999; Quinn and Hilmer, 1994]. 또한, 지식기반 산업이나 고기술 산업에서는 공급사와 고객사의 IT 지식과 전문성의 차이 때문에 아웃소싱 계약이 불완전하게 되면 아웃소싱으로 인한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Quinn, 1999; Smith *et al.*, 1998]. 이와 더불어, 아웃소싱은 자원과 서비스를 외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경쟁사 모방의 문제[Dierckx *et al.*, 1989; Teece, 1988], 기업 자원 보호 문제[Ettlie and Reza, 1992], 비슷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략적 포지션의 모호성[Hemphill, 2004]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면서 의미있는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Ettlie and Reza, 1992; Gottfredson *et al.*, 2005]. 본 연구는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아웃소싱 계약, 위험,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관리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리역량에 대한 지식은 개인과는 별도로 조직내에 존재하며, 관리역량에 관한 지식의 개발, 공유, 변형, 그리고 적용과 같은 프로세스는 조직차원에서 핵심역량이 된다[Brown and Duguid 2001; Spender 1996]. 결론적으로 아웃소싱 자체를 통한 정보자원의 독특한 차별화는 쉽지 않지만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통하여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Venkatraman *et al.*, 1994].

## III. 연구모델과 가설

본 연구모델은 전략적 아웃소싱과 핵심역량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아웃소싱의 분야와 대상은 전략적 접근방식과 핵심역량 중심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한 관점을 고려하여 <그림 1>은 두 개의 독립변수인(핵심역량 지향성, IT 아웃소싱 관리역량) 그리고 두 개의 종속변수(아우소싱된 업무의 복잡도, IT 아웃소싱 성과)를 제시한다.



<그림 1> 연구모델

문헌연구는 전략적 소싱이 그 회사의 핵심역량 만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적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Gottfredson *et al.*, 2005;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 3.1 핵심역량 지향성

핵심역량 지향성은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부족한 회사의 물리적 또는 지식자원을 외부로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Quinn, 1999]. 핵심역량 지향성은 첫째, 핵심역량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둘째, 핵심역량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셋째, 핵심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의 투자방향과 관리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관리적 핵심역량은 간단한 업무뿐만 아니라 복잡한 업무도 효율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돕니다[Gottfredson et al., 2005;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기업은 핵심역량을 구분하고 아웃소싱 될 업무 분야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Gottfredson et al., 2005]. 이처럼 핵심역량 지향성은 아웃소싱될 분야 업무의 복잡도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H1a를 제시한다.

**가설 1a:** 핵심역량 지향성은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역량 지향성’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아웃소싱을 실행하면 기존 아웃소싱과 비교하여 뛰어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아웃소싱의 주된 이유는 자원 대비 생산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고 그들의 제한된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관리적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자신들이 선택한 핵심역량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Gottfredson et al., 2005; 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이와 같은 토론은 다음과 같은 가설 H1b를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b:** 핵심역량 지향성은 IT 아웃소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

기업이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Quinn, 1999]. 아웃소싱은 기업의 IT 통제 프로세스의 변화와 정보 생산과

정을 변화시킨다[Ettlie and Reza, 1992; Hu et al., 1997]. 그러나 때때로 아웃소싱은 예상보다 관리비용이 더 소요될 때가 있다. 이것은 내부와 외부의 통합된 통제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통제 메커니즘은 고객사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관계, 계약서 작성방법, 위험관리, 그리고 관리절차를 포함하고 있다[Venkatraman et al., 1994]. 뿐만 아니라 기업 자원의 할당문제, 시스템의 계획과 구조문제와 핵심적 내부환경에 대한 일들에도 관여한다[Burgelman 1994]. 따라서 회사의 복잡한 업무 분야나 수준까지 아웃소싱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역량이다[Gottfredson et al., 2005]. 이런 역량이 아웃소싱의 실행과 맞물려 뛰어난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Teece, 198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a:**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은 아웃소싱된 업부분야의 복잡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은 IT 아웃소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역량 지향성이 아웃소싱된 업무 복잡도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성과와 복잡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성과와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와 성과에 IT 아웃소싱의 프로세스 관리역량의 매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리역량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성과간에 구조적으로 통합된 장치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기존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Lumpkin and Dess 1996]. 통합된 메커니즘은 기업가 정신과 조직내의 사회적인 거래활동을 임목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고 구축한다[Ber-

ger and Luckmann 1989; Nelson and Winter 1982]. 프로세스 역량이 통합된 메커니즘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을 활발화해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Kanter 1983]. 따라서 관리적 프로세스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들 관리적 프로세스 역량은 복잡한 업무분야를 아웃소싱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며 또한 업무의 목표성과도 제시할 것이다[Ettlie and Reza, 1992; Gottfredson *et al.*, 2005]. 결국 회사가 높은 핵심 역량지향성을 갖고 있다면 아웃소싱 위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은 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c: 핵심역량 지향성은 IT 아웃소싱 프로세

스 관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각각 측정 변수를 도출하여 공분산 구조방정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 4.1 측정변수 개발

본 연구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정보기술 서비스 품질 센터(IT Services Qualification Center; IT SQC)에서 만들어진 IT 아웃소싱 성숙도 모델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1>.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를 통하여 조사되었고 1은 ‘매우 반대’ 그리고 5는 ‘매우 찬성’으로 작성하였다.

<표 1> 개념적 모델을 위한 설문문항

개념	문항	설문내용
핵심 역량	CCO1	전략적 방향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지향성	CCO2	종업원은 핵심역량과 깊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IT 아웃소싱	CCO3	핵심역량은 시장의 변동사항을 잘 대처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CCO4	핵심역량은 우리 기업의 경쟁사에 대하여 비용 우위를 가져다 준다.
프로세스	OPC1	우리 회사와 아웃소싱 제공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리역량	OPC2	IT 아웃소싱 계약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와 수정을 실시한다.
	OPC3	IT 아웃소싱을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OPC4	IT 아웃소싱을 제공사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측정을 한다.
업무 복잡도	TASK1	IT 아웃소싱 제공사가 우리 기업환경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TASK2	IT 아웃소싱 제공사가 우리 업무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TASK3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사는 업무 일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TASK4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사는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야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IT 아웃소싱 성과	PER1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였다.
	PER2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위하여 새로운 워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PER3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위하여 인적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였다.

## 4.2 표본 특성

본 연구는 개별기업 대상으로 직접방문 조사하였다. IT 아웃소싱 협회에 등록된 회사의 IT 부서 담당 임원 또는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2>.

## 4.3 신뢰성 측정

변수 개념에 대한 신뢰성 측정은 Cronbach Alpha와 Composite Factor Reliability(CFR), 그리

고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로 각각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변수 개념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문헌에서 제시한 값, 0.70 [Nunnally, 1978], CFR 값 또한 0.70[Fornell and Larcker, 1981], 그리고 AVE 값 0.50[Segars, 1997]을 보여주고 있다<표 3>.

## 4.4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하여 유의한 교차 적재 값이 없음을 수행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모든

<표 2> 응답 기업의 특성(n = 200)

산 업			직원 수		
산업 분류	빈도	퍼센트	범위	빈도	퍼센트
제조	82	41.0	500 이하	88	44.0
통신	24	12.0	500~1000	37	18.5
은행/보험	20	10.0	1000~2000	32	16.0
도소매업	17	8.5	2000~5000	21	10.5
공공기관	13	6.5	5000 이상	22	11.0
건설	11	5.5			
교통	7	3.5			
의료산업	5	2.5			
기타	21	10.5			
응답자 특성					
IT 예산			응답자 직위		
범위	빈도	퍼센트	IT 고위급 임원	57	28.5
10억 미만	43	21.5	고위급 임원	50	25.0
10억 이상~50억 미만	70	35.0	IT 고위급 관리자	18	9.0
50억 이상~100억 미만	27	13.5	고위급 관리자	14	7.0
100억 이상~500억 미만	42	21.0	최고경영자	6	3.0
500억 이상	18	9.0	IT 시스템 컨설턴트	55	27.5

<표 3> 신뢰성 측정과 문항간 상관관계

개념적 변수	문항 수			변수 상관관계*				
	Alpha	Composite CFR	AVE	CCO	OPC	TASK	PER	
CCO	4	0.88	0.85	0.66	(0.81)			
OPC	4	0.88	0.81	0.62	0.64	(0.80)		
TASK	4	0.87	0.77	0.67	0.19	0.34	(0.82)	
PER	3	0.81	0.86	0.63	0.42	0.46	0.50	(0.79)

주) \*: Diagonal elements represent square root of AVE for that construct.

독립변수에 대하여 6개의 요인 값으로 구분되었고 0.4이상값 이상에서 교차 값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McKnight *et al.*, 2002].

<표 5>는 변수간 쌍별비교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표 6>은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요인적재값은 t-값과 문항별 설명력  $R^2$ 로 보여주고 있다.

#### 4.5 구조방정식 모델

본 연구의 측정 모델의 파라미터로 t-값, 설명력

$R^2$ 로 변수의 설명력과 변수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Muthén and Muthén[2003]가 개발한 Mplus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각 변수에서 사용된 문항에서 기준이 되는 값을 1로 놓고 기준이 된 값과 비교하여 적재 값을 산정하였다. 집중 타당성의 요인적재값과 t-값은 모두 2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thén and Muthén, 2003]. 그리고 변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변수를 설명하는 좋은 문항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표 7>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모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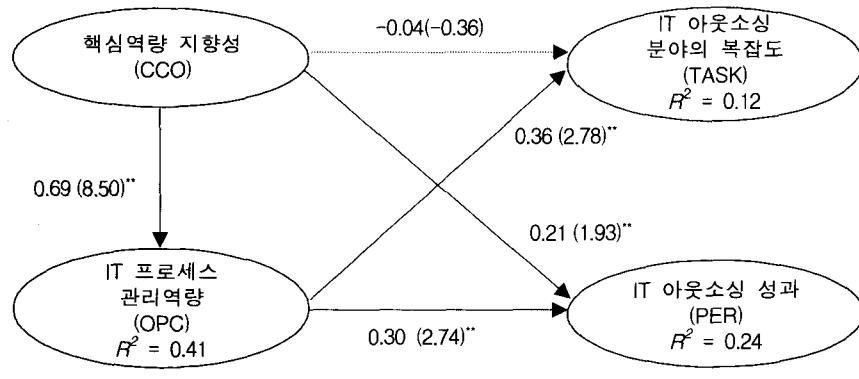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CO1	<b>0.788</b>	-0.075	-0.230	0.052
CCO2	<b>0.823</b>	-0.012	-0.240	0.103
CCO3	<b>0.811</b>	-0.058	-0.232	0.151
CCO4	<b>0.826</b>	-0.079	-0.221	0.151
OPC1	0.334	-0.182	<b>-0.718</b>	0.186
OPC2	0.235	-0.094	<b>-0.823</b>	0.142
OPC3	0.251	-0.099	<b>-0.802</b>	0.201
OPC4	0.212	-0.146	<b>-0.802</b>	0.015
TASK1	0.026	<b>-0.887</b>	-0.075	0.083
TASK2	0.026	<b>-0.878</b>	-0.136	0.088
TASK3	0.097	<b>-0.773</b>	-0.149	0.264
TASK4	0.077	<b>-0.736</b>	-0.110	0.253
PER1	0.195	-0.236	-0.101	<b>0.815</b>
PER2	0.209	-0.295	-0.057	<b>0.764</b>
PER3	0.020	-0.112	-0.273	<b>0.804</b>
Variance(10.99)	3.012	2.940	2.838	2.197
% of variance explained(73.2)	20.1	19.6	18.9	14.6

<표 5> 쌍별 비교 판별타당성

Constructs Constrained	Chi-square	Degrees of Freedom	Chi-square difference
None	115.61	84	-
PER with TASK	255.39	87	139.78
PER with OPC	260.72	87	145.11
PER with CCO	283.07	87	167.46
TASK with OPC	423.95	87	308.34
TASK with CCO	473.34	87	357.73
OPC with CCO	279.86	87	164.25

&lt;표 6&gt; 확증적 요인분석 측정모델

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표준화된 문항 적재 값	t-값	R2
CCO1	3.59	0.80	0.85	11.75	0.55
CCO2	3.43	0.84	0.98	15.09	0.65
CCO3	3.39	0.83	0.98	15.18	0.68
CCO4	3.54	0.83	1.00	0.00	0.70
OPC1	3.63	0.77	0.82	12.08	0.62
OPC2	3.45	0.88	0.97	15.15	0.69
OPC3	3.60	0.91	1.00	0.00	0.68
OPC4	3.45	0.81	0.81	11.24	0.55
TASK1	3.52	0.82	0.98	15.33	0.75
TASK2	3.57	0.83	1.00	0.00	0.76
TASK3	3.86	0.87	0.90	12.66	0.55
TASK4	3.74	0.82	0.77	10.10	0.46
PER1	3.45	0.84	1.00	0.00	0.70
PER2	3.48	0.79	0.86	9.77	0.58
PER3	3.45	0.87	0.88	10.98	0.50



\*  $p < 0.10$    \*\*  $p < 0.05$ .

&lt;그림 2&gt; 분석된 모델

&lt;표 7&gt; 측정된 모델의 접합도 기준표

접합도 기준 인덱스	측정모델	SEM
Normed Chi-Square	1.38	1.49
GFI (Goodness of fit Index)	.93	.94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91	.92
CFI (Comparative Fit Index)	.98	.98
TLI (Tucker-Lewis Index)	.97	.97
NFI (Normed Fit Index)	.92	.94
NNFI (Non-normed Fit Index)	.97	.97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43	.050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48	.047

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normed chi-square ( $\chi^2/d.f.$ ) 값은 1.38로서 문헌기준 3.0 or 5.0[Krause et al., 2000]을 만족하고 있고, RMSEA 값은 0.043으로 문헌기준 0.06이하이며, CFI와 TLI는 각각 0.98과 0.97을 보여주고 있어 0.90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문헌기준을 만족하고 있다[Bhattacharjee, 2002; Hu and Bentler, 1999; Krause et al., 2000]. 또한 GFI 값은 0.93으로 AGFI 값 0.91과 더불어 모델 적합도가 문헌기준 각기(0.80과 0.90) 이상의 만족스런 수준임을 보여준다[Gefen et al., 2000]. 이와 같은 경우 표준화된 RMR(SRMR)은 모델의 적합도가 나쁨 정도를 표시해주는 지표로서 SRMR 값이 0.048로 문헌기준 0.10이하로서 모델 적합도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적합도를 고려해 본 결과 연구모델로서 충분히 타당한 모델임을 입증하고 있다[Byrne, 1998; Hu and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가설 H1b: IT 핵심역량 지향성이 아웃소싱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 -value of 1.93). 또한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은 업무 복잡도에 유의하게 영향과(H2a,  $t = 2.78$ ) 그리고 아웃소싱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H2b,  $t = 2.74$ ). 마지막으로 핵심역량 지향성과 프로세스 관리역량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H2c,  $t = 8.50$ ). 그러나 핵심역량 지향성과 업무 복잡도와 가설은 기각되었다(H1a).

## V. 결 론

본 연구모델은 전략적 지향성과 핵심역량이론을 IT 아웃소싱에 적용하여 핵심역량 지향성,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 아웃소싱된 업무 복잡도, 그리고 IT 아웃소싱 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높은 핵심역량 지향성은 프로세스 관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

고 또한 IT 아웃소싱 성과와도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은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복잡도와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역량 지향성이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와는 유의하지 않음이 발견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기업이 높은 수준의 핵심역량 지향성을 갖고 있어도 지향성 자체만으로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한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의 매개효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역량 지향성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웃소싱된 업무의 복잡도엔 나타나지 않지만 아웃소싱 성과와는 유의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략적 소싱 문헌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ottfredson et al., 2005; Quinn, 1999; Quinn et al., 1990; Quinn and Hilmer, 1994]. 이는 기업이 그들의 핵심역량에 역점을 두고 IT 아웃소싱을 성공적 이끌려는 의도는 크지만 핵심역량이 아닌 복잡한 업무분야를 전략적으로 아웃소싱 하려는 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높은 핵심역량 지향성을 추구하고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IT 아웃소싱을 획득하고 더불어 복잡한 업무를 파악하여 전략적 아웃소싱을 달성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경영층과 조직 변수가 빠져있다. 대부분의 아웃소싱 결정은 최고경영자와 관리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들의 태도가 아웃소싱에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전략적 지향성과 함께 관리자의 전략적 아웃소싱의 태도변수를 첨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게다가 아웃소싱은 기업의 크기와 조직 문화 등에 아웃소싱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

업문화와 조직의 크기가 전략적 아웃소싱과의 영향관계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아웃소싱의 기준연구가 공급사와 고객사의 관계, 통합, 그리고 조절간의 관계와 성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아웃소싱 프로세스 관리역량이 통제와 관계요인의 통합과 조절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아웃소싱 만족과 결정과 같은 성과모델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핵심역량을 이해하고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를 중심으로 실무 관리자가 전략적 아웃소싱을 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Quinn, 1999].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록 아웃소싱 성과가 내부 역량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한 발견이긴 하나 향후 연구는 아웃소싱 제공사의 역량과 아웃소싱 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웃소싱 공급사로부터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역량의 역할 또한 연구할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연구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성과부분에 해당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그리고 아웃소싱 때문에 줄어든 소득 부분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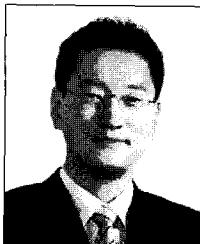
- [1] Ang, S. and Cummings, L.L., "Strategic Response to Institutional Influences on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Organization Science*, Vol. 8, No. 3, 1997, pp. 235-256.
- [2] Ang, S. and Straub, D.W., "Production and Transaction Economies and IS Outsourcing: A Study of the U.S. Banking Industry," *MIS Quarterly*, Vol. 22, No. 4, 1998, pp. 535-552.
- [3] Bakos, Y. and Brynjolfsson, E., "Organizational Partnerships and the Virtual Corpor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How Information Technology Shapes Competition," C.F. Kemerer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MA, 1997, pp. 1-16.
- [4] Berger, P.L. and Luckmann, T.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Anchor Books, New York, NY, 1989.
- [5] Bhattacherjee, A., "Individual Trust in Online Firms: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1, 2002, pp. 211-241.
- [6] Brown, J.S. and Duguid, P., "Knowledge and Organization: A Social-Practice Perspective," *Organization Science*, Vol. 12, No. 2, 2001, pp. 198-213.
- [7] Burgelman, R.A., "Fading Memories: A Process Theory of Strategic Business Exit in Dynamic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9, No. 1, 1994, pp. 24-56.
- [8] Byrne, B.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Lawrence Erlbaum Associated Publisher, Mahwah, NJ, 1998.
- [9] Chalos, P. and Sung, J., "Outsourcing Decisions and Managerial Incentives," *Decision Sciences*, Vol. 29, No. 4, 1998, pp. 901-919.
- [10] Chaudhury, A., Nam, K., and Rao, H.R.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A Bidding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2, No.

- 2, 1995, pp. 131-159.
- [11] Chesbrough, H.W. and Teece, D.J., "When is Virtual Virtuous? Organizing for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4, No. 1, 1996, pp. 65-71.
- [12] Cross, J., "IT Outsourcing: British Petroleum's Competitive Approach,"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No.3, 1995, pp. 94-102.
- [13] Dierickx, I., Cool, K., and Barney, J.B.,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 *Management Science*, Vol. 35, No. 12, 1989, pp. 1504-1513.
- [14] Earl, M.J., "The Risks of Outsourcing 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7, No.3, 1996, pp. 26-32.
- [15] Ettlie, J.E. and Reza, E.M., "Organizational Integration and Process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5, No. 4, 1992, pp. 795-826.
- [16] Feeny, D.F. and Willcocks, L.P., "Core IS Capabilities for Exploiting Information Technology,"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9, No. 3, 1998, pp. 9-21.
- [17] Fornell, C. and Larcker, D.,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1981, pp. 39-50.
- [18] Gefen, D., Straub, D., and Boudreau, 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No. 7, 2000, pp. 1-79.
- [19] Gottfredson, M., Puryear, R., and Phillips, S., "Strategic Sourcing From Periphery to the Cor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83, No. 2, 2005, pp. 132-139.
- [20] Grover, V., Cheon, M.J., and Teng, J.T.C.,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and Partnership on the Outsourcing of Information Systems Function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2, No. 4, 1996, pp. 89-116.
- [21] Hamel, G. and Prahalad, C.K., "Competing for the future," *Harvard Business Review* Vol.72, No.4, 1994b, pp. 122-128.
- [22] Hamel, G. and Prahalad, C.K., "Competing for the Futur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 1994a.
- [23] Hemphill, T.A., "Global Outsourcing: Effective Functional Strategy or Deficient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Vol. 4, No. 4, 2004, pp. 62-68.
- [24] Ho, V.T., Ang, S., and Straub, D., "When Subordinates Become IT Contractors: Persistent Managerial Expectations in IT Outsourc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4, No. 1, 2003, pp. 66-88.
- [25] Hu, L. and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Matrix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No. 1, 1999, pp. 1-55.
- [26] Hu, Q., Saunders, C., and Gebelt, M. "Research Report: Diffusion of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A Reevaluation of Influence Sourc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8, No. 3, 1997, pp. 288-301.
- [27] Kanter, R.M. *The Change Masters: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American Corporation* Simon & Schuster, New York, NY, 1983.
- [28] Kern, T. and Willcocks, L., "Exploring Relationships in 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The Interaction Approach," *Euro-*

- 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1, No. 1, 2002, pp. 3-19.
- [29] Krause, D.R. Scannell, T.V. and Calantone, R.J.,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Buying Firms' Strategies to Improve Supplier Performance," *Decision Sciences*, Vol. 30, No. 1, 2000, pp. 33-55.
- [30] Lacity, M.C. and Hirschheim, R., "The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Bandwago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5, No. 1, 1993, pp. 73-86.
- [31] Lacity, M.C., Willcocks, L.P., and Feeny, D.F., "IT Outsourcing: Maximize Flexibility and Control,"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No. 3, 1995, pp. 84-93.
- [32] Lacity, M.C. Willcocks, L.P., and Feeny, D.F., "The Value of Selective IT Sourcing,"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7, No. 3, 1996, pp. 13-25.
- [33] Lee, J.N. and Kim, Y.G. "Effect of Partnership Quality on IS Outsourcing: Conceptual Framework and Empirical Validation,"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5, No. 4, 1999, pp. 29-61.
- [34] Loh, L. and Venkatraman, N.,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Influence Source and the Kodak Effec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3, No. 4, 1992, pp. 334-358.
- [35] Lumpkin, G.T. and Dess, G.G.,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1996, pp. 135-172.
- [36] McFarlan, F.W. and Nolan, R.L., "How to Manage an IT Outsourcing Alliance,"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6, No. 2, 1995, pp. 9-23.
- [37] McKnight, D.H. Choudhury, V., and Kacmar, C., "Developing and Validating Trust Measures for e-Commerce: An Integrative Typolog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3, No. 3, 2002, pp. 334-359.
- [38] Miles, R.E., Snow, C.C., Meyer, A.D., and Coleman, H.J., JR,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 No. 3, 1978, pp. 546-562.
- [39] Muthén, B. and Muthén, O.L., *The Comprehensive Mode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User Guide*,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2003.
- [40] Nam, K., Rajagopalan, S., Rao, H.R., and Chaudhury, A., "A Two-Level Investigation of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39, No. 7, 1996, pp. 36-44.
- [41] Nelson, R.R., and Winter, S.G.,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2.
- [42] Nunnally, J.C., *Psychometric theory*. 2nd edn. New York: McGraw-Hill; 1978.
- [44] Porter, M., *Competitive Strategy*, Free Press, New York, NY, 1980.
- [44] Quinn, J.B., "Strategic Outsourcing: Leveraging Knowledge Capabilities," *Sloan Management Review*, Vol. 40, No. 4, 1999, pp. 9-21.
- [45] Quinn, J.B. and Hilmer, F.G., "Strategic Outsourcing,"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5, No. 4, 1994, pp. 43-55.
- [46] Quinn, J.B., Doorley, T.L., and Paquette, P.C., "Technology in Services: Rethinking Strategic Focus,"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2, 1990, pp. 79-87.
- [47] Sabherwal, R., "The Role of Trust in Out-

- sourced IS Development Project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2, No. 2, 1999, pp. 80-86.
- [48] Sabherwal, R. and Chan, Y.E., "Alignment between Business and IS Strategies: A Study of Prospectors, Analyzers, and Defender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2, No. 1, 2001, pp. 11-33.
- [49] Saunders, C., Gebelt, M., and Hu, Q., "Achieving Success in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39, No. 2, 1997, pp. 63-79.
- [50] Segars, A.H., "Assessing the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A Paradigm and Illustration with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mega*, Vol. 25, No. 1, 1997, pp. 107-121.
- [51] Smith, M.A., Mitra, S., and Narasimhan, S.,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A Study of Pre-Event Firm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5, No. 2, 1998, pp. 61-93.
- [52] Spender, J.C., "Competitive Advantage from Tacit Knowledge? Unpacking the Concep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i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petitive Advantage*, B. Moingeon and A. Edmondson (eds.), Sage, Newbury Park, CA, 1996.
- [53] Teece, D.J., "Capturing Value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ntegration, Strategic Partnering, and Licensing Decisions," *Inter-*
- faces*, Vol. 18, No. 3, 1988, pp. 46-61.
- [54] Teng, J.T.C., Cheon, M.J., and Grover, V., "Decisions to Outsource Information Systems Functions: Testing a Strategy-Theoretic Discrepancy Model," *Decision Sciences*, Vol. 26, No. 1, 1995, pp. 75-103.
- [55] Tiwana, A., "Beyond the Black Box: Knowledge Overlaps in Software Outsourcing," *IEEE Software*, Vol. 21, No. 5, 2004, pp. 51-58.
- [56] Venkatraman, N., "Strategic Orient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The Construct, Dimensionality, and Measurement," *Management Science*, Vol. 35, No. 8, 1989, pp. 942-962.
- [57] Venkatraman, N., Loh, L., and Koh, J., "The Adoption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 Test of Competing Diffusion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 40, No. 4, 1994, pp. 496-507.
- [58] Wang, E.T., Barron, T., and Seidmann, A., "Contracting Structures for Custom Software Development: The Impacts of Informational Rents and Uncertainty on Internal Development and Outsourcing," *Management Science*, Vol. 43, No. 12, 1997, pp. 1726-1744.
- [59] Willcocks, L., Hindle, J., Feeny, D., and Lacity, M., "IT and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The Knowledge Potential,"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 21, No. 3, 2004, pp. 7-15.

## ◆ 저자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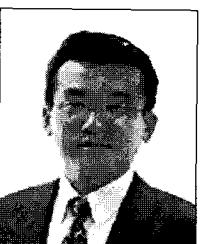
김용진 (Kim, Yong Jin)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박사학위, 서강대학교에서 MBA,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뉴욕주립대-Binghamton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지식경영과, 서비스 경영, IT 프로젝트와 평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이며 주요 논문을 MIS Quarterly, Communications of the ACM, Decision Support Systems, JITAA,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Knowledge and Process Management, 그리고 Journal of Internet Commerce 등에 발표하고 있다.



구철모 (Koo, Chulmo)

현재 인하대학교 물류정보기술 연구단에서 B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Minnesota, MIS Research Center에서 포터 연구원과 Marshall University 경영학과에서 MIS 교수진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식경영과 혁신경영, 전자상거래 전략, 정보기술 활용, IT 아웃소싱과 Service Level Agreement, 그리고 Supply Chain Management 등이며 주요 논문을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Journal of Internet Commerce, Information System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그리고 경영정보학연구와 경영과학지, 그리고 정보과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남기찬 (Nam, Ki-Chan)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ssissippi에서 MBA 그리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IT 아웃소싱, SLA, 서비스 매니지먼트, ASP, IT 성과평가 등이며 주요 논문이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ommunications of the ACM,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등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송재기 (Song, Jaeki)

Texas Tech 대학교 Rawls College of Business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논문을 Management Scienc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Inform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ntier,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Business Research, Journal of Internet Commerce, and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 Organizations 등에 발표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06월 26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7년 08월 21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